

월화드라마 3파전



SBS '사내맞선'



tvN '군검사 도베르만'



KBS '크레이지 러브'

SBS '사내맞선' 승기 잡았다

구김살 없이 자란 평범한 회사원 신하리(김세정 분). 재벌집 딸인 친구 '대타'로 나간 맞선에서 회사 대표 강태무(안효섭)를 만난다.

직장인 '분캐' (분 캐릭터)와 맞선녀 '부캐' (부 캐릭터)를 오가며 가슴 졸이던 신하리의 정체는 금세 탄로 난다. 그러나 통통 튀는 신하리의 매력에 강태무의 마음이 급진전하며 설레는 로맨스가 펼쳐진다.

신데렐라 스토리, 현실성 떨어지는 설정에 결말도 이미 가능하다. 뻔할 법도 한데 SBS TV 드라마 '사내맞선'은 지난 15일 방송 6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다.

월화드라마 새 작품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3파전이 시작된 가운데 김세정·안효섭 주연의 SBS TV '사내맞선'이 시청률에 이어 온라인 클럽 재생 수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19일 주요 방송사의 클럽 주문형 비디오(VOD)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에 따르면 '사내맞선'의 클럽 영상 재생 수는 13일 기준으로 누

방송 6회만에 시청률 10% 돌파 tvN '군검사 도베르만' 과 각축

적 734만 뷰, 회당 평균 183만 뷰로 현재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 작품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한 tvN '군검사 도베르만'은 누적 재생 수 619만 뷰, 회당 평균 155만 뷰를 기록하며 '사내맞선'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두 드라마는 방영 2주 차에 전 주 대비 재생 수가 각각 1.7배, 2.3배 오르며 성장세를 보인다. 시청률도 상승하면서 '사내맞선'은 15일 10.1%, '군검사 도베르만'은 8.7%로 각각 자체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두 작품보다 한 주 늦게 방송을 시작한 KBS 2TV '크레이지 러브'는 누적 재생 수 63만 뷰, 회당 평균 32만 뷰를 기록한 데 이어 시청률 또한 평균 2%대로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동명의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사내맞선'은

평범한 식품연구원 신하리(김세정 분)가 친구 대신 나간 맞선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사장인 강태무(안효섭)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순정만화 같은 스토리라인에 기반을 둔 이 작품은 자칫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코믹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보현·조보아 주연의 '군검사 도베르만'은 군 법정이라는 새로운 소재에 비리 세력을 처단하는 다크 히어로극의 통쾌함을 더해 팬층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사내맞선'과 '군검사 도베르만'은 개별 클럽 재생 수에서도 각축을 벌이고 있다.

'사내맞선'은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의 개별 클럽 재생수 톱(TOP)3을 모두 차지하고 상위 10위 중 8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 3개 클럽은 개별 재생 수 40만 회를 넘기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군검사 도베르만'은 상위 10개 클럽 중 4위와 6위를 차지해 각각 약 36만 회, 25만 회의 개별 재생 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염정아, 3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JTBC 토일드라마 '클리닝업' 주연... 전소민·김재화도



JTBC 새 토일드라마 '클리닝업'의 배우 염정아, 전소민, 김재화 (왼쪽부터)

배우 염정아가 JTBC 새 토일드라마 '클리닝업'으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JTBC는 염정아, 전소민, 김재화가 '클리닝업' 주연을 맡는다고 21일 밝혔다. '클리닝업'은 증권사 미화원들이 우연히 듣게 된 내부자거래 정보로 주식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후 3년 만에 JTBC 드라마로 다시 돌아온 염정아는 용역 청소부 어유미 역을 맡아 두 딸을 위해

평일에는 청소부, 주말은 가사도우미로 바쁘게 살아가는 가장을 연기한다.

전소민은 이동식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미화원으로 자금을 모으는 안인경 역을, 김재화는 높은 친화력을 가진 맹수자 역을 맡는다.

드라마 '각시탈'·'철인왕후'의 윤성식 PD와 '리턴'의 최경미 작가가 의기투합한 '클리닝업'은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수 홍진영, 1년 반 만에 활동 재개

다음달 신곡 발표... "논문표절 논란 속죄, 다시 초심으로"

석사 논문 표절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홍진영(사진)이 약 1년 반 만의 지속 끝에 다시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홍진영이 4월 6일 신곡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논문 표절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홍진영은 최근 신곡 녹음 작업을 마쳤으며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그동안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 주신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과오와 불찰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숙과 반성의 기간을 갖는 동안 소속사와 홍진영은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가수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수의 길을 걷고자 한다"고 했다. 소속사는 "분에 넘치는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대중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뷔 후 '박사 가수'로 알려졌던 홍진영은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74%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몇 차례 입장 발표 끝에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으나, 조선대 측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표절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SBS '판타스틱 패밀리' 정규 편성...5월 첫방송

설 특집으로 방송된 SBS TV 파일럿 음악 예능 'DNA싱어-판타스틱 패밀리(이하 판타스틱 패밀리)'가 정규 편성된다.

SBS는 다음 달 '판타스틱 패밀리' 녹화를 시작해 오는 5월 정규 시즌으로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

'판타스틱 패밀리'는 스타의 가족이 'DNA 싱어'가 돼 노래를 부르고, DNA 판정단은 DNA 싱어의 얼굴

과 목소리뿐만 어떤 스타의 가족인지 추리하는 가족 음악 추리쇼다.

설 특집에서는 가수 송가인과 조카 조은서(사진), 개그맨 최성민과 친동생 최성환, 가수 진성과 친동생 진성문 등의 무대가 화제가 됐다.

정규 시즌에서도 개그맨 이수근이 MC를 맡으며, 양세찬, 장도연, 양희은 등이 DNA 판정단으로 활약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